



한 총리, 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고 잊지 않을 것”

- 소방청 주최 ‘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’ 현장에 국무총리로서 처음 참여
- 지진 발생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국가단위 범정부 총력 대응역량 점검
- 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”
- 부천 공장화재 진화작업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애도

-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2일(목) 오후,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일원에서 소방청이 주최하고 전국의 74개 기관·단체가 합동 참여하는 ‘2026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’에 참석하여 범정부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였다.
 -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중앙·지방정부, 군, 민간이 함께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으로, ‘18년도에 첫 실시된 이후 국무총리가 현장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- 이날 훈련 시작에 앞서 지난 부천 공장화재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애도하는 묵념을 했다.
 - 한 총리는 훈련 종료 후 강평 발언에서 “최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공무원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,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”고 말했다.
- 이번 훈련은 영종도 일원에서 규모 6.5(진도 8)의 지진이 발생하여 건물 붕괴 및 화재 발생, 연륙교 교통마비, 유해화학물질 누출, 산불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지역 차원의 대응 역량을 넘어서는 상황을 가정했다.

- 특히, K-pop 공연 중 외국인 사상자 인명구조와 연륙교 붕괴로 육상 진입로가 차단된 상황을 설정, 해상·공중을 통한 대응자원 활용과 외국인 피해자 지원 등 국가의 모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< 주요 훈련 내용 >

-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단계별 현장 지휘
- 대응량포 방사시스템, 무인소방로봇 등 첨단장비 활용 대응
- 건물 붕괴현장 인명구조와 다수사상자 분류·응급처치
- 유해화학물질 누출 차단 및 산불·대형화재 진압
- 고립지역 해상·공중 구조와 긴급환자 이송
- 외국인 재난피해자 지원

- 한 총리는 훈련을 마무리 하며 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”라고 강조하며
- “평상시의 철저한 준비와 반복적인 훈련만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당부하였다.
- 아울러, “정부는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지원할 것”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안전 환경에너지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장준경	(044-200-2363)
		담당자	소방령	권순직	(044-200-2686)